뉴스인물 '소파개정 국민행동' 오두희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의식할수록 협상전망은 밝아질것"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매일 3000t에 달하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흘러나옵니다. 부대 부근에서는 위조지폐가 심심찮게 통용되고, 택시 기사들이 술에 취한 미군에게 얻어맞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지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오두희 공동집행위원장은 "군산기지의 현 상황은 환경·통관·형사관할권 등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1996년 5월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 결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미군기지 문제에 뛰어든 그는, 3년여 동안 계속된 군산기지 앞 금요집회를 통해 "미군주둔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유일한 길은 불평등한 소파 개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소파가 체결될 당시만 해도 우리 정부는 국방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세월 동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군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에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제1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행정협정) 개정협상 시작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그는 4일 협상이 열렸던 서울 방배동 외교협회 건물 앞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파 개정'을 외쳤다. 미국쪽 협상관계자들은 서너차례 이들의 시위모습을 눈여겨보기도 했다.

"오늘 협상장을 갑자기 바꾼 것도 시위를 쉽게 차단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게지요." 이날 오전 일찍 외교협회를 찾았다가 협상 장소가 바뀐 것을 알고 뒤늦게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달려온 그는 "미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의식하면 할수록 협상 전망은 밝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매향리 미공군 고온리 사격장 오폭사고와 뒤이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반미감정이 끓어오른데다, 남북한의 화해분위기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 동력"이라며 "정권 교체기에 접어든 미국으로선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만큼 이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사진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